

『빨강머리 앤』 번역과 수용의 문화 동력학*

— 공동체, 개인 그리고 젠더화된 문학적 상상력

김성연**

1. 서론
2. 『빨강머리 앤』의 번역·수용사
 - 2-1. 번역 출판의 50년사
 - 2-2. 1950~1960년대: 전후 고아, 여고생, 그리고 일본문화
 - 2-3. 1970~1990년대: 문화컨텐츠, 걸 파워
3. 『빨강머리 앤』의 문화정치학
 - 3-1. 젠더화된 상상력=소녀의 생존 비책
 - 3-2. 공상 소녀, 보수적 공동체로 귀환하다
 - 3-3. *Anne of Green Gables*에서 『빨강머리 앤』으로
: ‘배타적 공동체’로부터 ‘개인적 수양’으로
4. 결론

국문요약

캐나다 작가 몽고메리의 작품 *Anne of Green Gables*의 한국어 번역본 『빨강머리 앤』은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여성 독자에게 향유되어온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다. 이 출판물은 여고생뿐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 독자까지 포섭하고 영상물로도 제작되어 세대를 거쳐 전수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빼 놓을 수 없는 문화사적 존재감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이 텍스트의 출판과 소비의 시대별 특징을 정리하여 수용사를 밝히고, 한 편의 텍스트가 국경을 건너면서 굴절되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는 양상과 수용 문화권에서 향유되고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문화적 동력학을 규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빨강머리 앤』 서사로부터 젠더적, 내셔널리즘적 차원에서 논쟁적 지점들이 있음을 독해했다. 그리고 번역 판본 비교라는 실증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담론 연구를 더욱 정교화할 수 있었다. 최초 번역본이자 가장 널리 읽힌 한국어본인 신지식 번역본은 일본어본의 중역이었으며 따라서 1950년대 소녀소설을 의식하며 작업했던 무라오카 하나코의 세계관과 작품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문에서는 두드러지던 ‘민족 단위의 배타적 공동체들 간의 긴장감’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열악한 현실적 조건을 극복하는 개인의 정신력’의 문제로 초점이 완전히 옮겨가게 되고 ‘보수적 여성관’은 강화되었다. 동양의 독자들에게 이 텍스트의 배경은 캐나다라는 국가적 상징으로 인식되지 않고 서정적 자연을 풍경으로 하는 이상적 마을 공동체로 인식되었다. 또한 1960년대 한국 문학과 출판 시장 속에서 ‘긍정적 낙관적 세계관을 담지하고 보수적 여성관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서사’였던 『빨강머리 앤』은 다소 이질적인 존재였다.

문학 연구로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빨강머리 앤』의 전체적인 서사를 관통하는 갈등이 ‘문학’과 ‘생산성’ 사이의 긴장 관계였다는 점이다. ‘문학적 언어와 수행적·지시적 회화’, ‘공동체의 관습적 규율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노동력으로서 소녀와 사내아이의 쓸모’가 충돌하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문학’과 ‘여성’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이 젠더화되며 발현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빨강머리 앤』에서 상상력은 사회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용납되었으며 상상력의 유통기한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순간 시효를 다한다. 그렇게 공상소녀는 공동체로 귀환했다. 1908년 캐나다 여성의 현실과 소망이 담긴

『빨강머리 앤』은 20세기 후반 한국 여성의 현실에 공명하고 문학적 상상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21세기 초두에 남아 있다.

(주제어: 『빨강머리 앤』, 신지식, 무라오카 하나코, 번역과 수용의 문화 동력학, 젠더화된 문학적 상상력, 생산성, 배타적 공동체, 고아, 여고생)

1. 서론

1960년대 『빨강머리 앤』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베스트셀러였으며¹⁾ 현재까지 거의 매 해 번역본이 출판되어온 스테디셀러이다. 이 작품의 한국 수용은 특정 세대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인쇄 출판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활용되어 그 기본 서사가 재생산되어왔다. 특히 반세기를 거치며 『빨강머리 앤』을 추억하는 한국 여성 독자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왔다. 따라서 이 텍스트의 수용사를 살펴보는 것은 근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성장이 독해된 방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빨강머리 앤』의 원작 *Anne of Green Gables*(1908)는 출간 직후 20여 개 국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렸으며 이후 9권까지 전집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영화, 뮤지컬, TV시리즈물로도 생산되어 현재까지 재방영 되어오고 있다. 캐나다 여성작가 몽고메리(L.M.Montgomery)는 이 작품으로 대영제국훈장, 프랑스 예술원 은메달을 수여받고 여성 최초 영국 왕립예술원 회원이자 캐나다 프레스 클럽 회원, 프랑스 예술원 회원

1) 『베스트셀러』, 『동아일보』, 1963.4.18.

이입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350쪽.

이 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물의 운명이 그래왔듯이 비평가와 연구자들은 이 텍스트를 고평하지 않았고 1970년대에 일어난 여성 작가에 관한 관심 속에서 몽고메리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즐겨 읽혀왔다는 사실이 새삼 주목되기 시작했다.²⁾

이후 서구 문학 연구에서는 『빨강머리 앤』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다수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문학이자 주인공,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정리하거나 일반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밖에도 캐나다인들의 자매애의 발현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 연관지어 접근한 연구³⁾, 미국 문학과와의 분리 혹은 연결지점을 모색한 연구⁴⁾ 등이 있다. 그 중 담론 연구나 문화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내셔널리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빨강머리 앤』의 배타적 민족주의 서사로서의 성격을 독해한 논문과⁵⁾ 일본의 유난스러운 『빨강머리 앤』 붐을 대중문화와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⁶⁾, 그리고 근현대 일본의 소녀 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⁷⁾ 있다. 즉 『빨강머리 앤』 연구는 서양 문학 연구와 일본 문학 연구가 양 대 축을 이루고 있고 한국의 수용에 관해서는 접근된 바 없다.

이 논문은 ‘수용사 정리’와 ‘담론 분석’, 그리고 ‘번역 비교’를 병행하여

2) 김유경 역, 『그린케이블스 빨강머리 앤』, 2001. 19쪽.

3) Kristine Moruzi, “I am content with Canada”: Canadian Girl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Jeunesse: Young People, Texts, Cultures* 4,1(2012).

4) 강석진, 『캐나다 국적 아이콘 『빨강머리 앤』의 미국화』, 『영어영문학』 54권 4호, 2008.

5) Mark A. McCutcheon, “German as the Other National Canadian Culture”,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Vol 78, No.2, Spring 2009.

6) Bergstrom, B. (University of Chicago, United States), “Avonlea as ‘world’: Japanese Anne of Green Gables tourism as embodied fandom”, *Japan Forum*, vol,26, Issue 2, April 2014.

7) Uchiyama, Akiko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Akage no An in Japanese girl culture: Muraoka Hanako’s translation of Anne of Green Gables”, *Japan Forum*, vol,26, Issue 2, April 2014.

한 텍스트의 국경 이동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먼저, 한국 근현대 반세기 동안 여성들에게 적극 향유되어 온 『빨강머리 앤』의 시대별 수용 특성을 밝혀 수용사를 정리하고 서사 분석을 통해 그 문화적 동력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성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서사를 ‘낭만적/문화적 상상력’과 ‘생산성’과의 긴장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빨강머리 앤』은 그 자체로도 문제적인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원본→일본어 번역본→한국어 중역’의 단계를 거치며 서사 초점이 이동한 지점들이 갖는 의미를 밝힌다. 서사 속 ‘배타적 공동체’의 긴장감이 일본과 한국을 거쳐 들어오며 ‘개인적 수양’의 문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근대 문화의 특수성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빨강머리 앤』의 번역·수용사

2-1. 번역 출판의 50년사

『빨강머리 앤』은 1960년대 초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⁸⁾ 1962년대 이화여고 교지에 번역 연재되었던 이 소설은 1963년 단행본으로 출판되고, 이듬해 총 10권의 전집으로 발행된다. 번역가인 신지식은 일본 최초의 번역본인 무라오카 하나코(村岡花子) 번역의 『赤毛のアン(빨강머리 앤)』(1952)을 원본으로 삼아 중역했기 때문에 *Anne of Green Gables*(1908)라

8) 식민지 시기 『빨강머리 앤』이 소개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 소설 『빨강머리 앤』과 유사한 서사의 미국 소설 『폴리애나』가 조선예수교 출판사의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되고 여성지에 번역 소개된 적은 있다.(MK생, 『Pollyanna 팔니의나』, 『여자계』 4호, 1920.3.)

는 원제 역시 『빨강머리 앤』으로 번역되었다.⁹⁾ 이 첫 번째 제목이 한국 사회에 남긴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이후 한국어 번역본들 역시 『빨강머리 앤』이라는 제목을 버리긴 힘들게 되었다.

그 번역본들은 대부분 정식 번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 출판되곤 했다. 1987년 한 신문 기사는 당시 10여 개 출판사에서 『빨강머리 앤』의 번역본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번역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의 삽화를 짜깁기한 것들도 있다는 지적을 하며 번역물 난립과 질적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¹⁰⁾ 해방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빨강머리 앤』의 한국어 번역본은 아동물까지 합치면 40여 종 이상이 된다. 1990년대부터는 출판 횟수가 더욱 빈번해졌지만 대부분 아동물이거나 축약본이 많고 이전 출판물들의 재판인 경우도 있다. 물론 원서의 충실한 완역임을 내세운 신간이 발행되기도 했으나 사실상 한국에서 『빨강머리 앤』이 여성 문화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1990년대 이전이므로 당시까지의 번역 출판물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일본에서 『빨강머리 앤』 붐을 일으킨 대표적 번역가는 무라오카 하나코(村岡花子)이다. 당시 미카사쇼보(三笠書房)출판사 편집자는 *Anne of Green Gables*라는 원제를 '빨강머리 앤'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고, 번역가 무라오카 하나코는 이를 받아들여 1952년 『빨강머리 앤』 시리즈가 본격 번역 출판되게 된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빨강머리 앤』이 선풍적 인기를 끌며 각종 문화 산업에서도 활용되고 매니아 층이 형성되게 된다. 1950년대에는 1954년부터 신초분코(新潮文庫)와 고단샤(講談社) 당시 출판사명: 大日本雄弁會講談社 등에서 빨강머리앤 이야기(赤毛のアン物語)라는 앤 시리즈가 활발히 출판되었다.

10) 『동아일보』, 1987.1.28. 『알프스 소녀』는 14개 출판사에서 16종의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표1. 1960~1980년대 『빨강머리 앤』의 한국어 번역 목록〉

번호	출판년도	제목	번역자	출판사
1	1963	빨강머리 앤1, 앤의 청춘2	신지식	육민사
2	1964(2권씩 합본, 총5권 전집), 1965, 1978, 1984, 1985, 1986, 1987, 1994	앤(총10권 전집의 표제) 빨강머리 앤(1권)	신지식	창조사
3	1971	빨강머리 앤	방은희	은영사
4	1972, 1980	빨강머리 앤(레먼문고19)	방은희	청자각
5	1972	빨간머리 앤	이재철	대일출판사 (캐나다 라이선스)
6	1974	빨강머리 앤 (소년소녀세계동화전집17)	석용원	광음사
7	1975	빨강머리의 앤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5미국편)	서영은	국민서관
8	1976	빨강머리 앤 (딱다구리 그레이트 북스25)	손소희	동서문화사
9	1977	빨강머리 앤1(동서문고73)	손소희	동서문화사
10	1979	빨강 머리의 앤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21)	이재철, 박찬식	상서각
11	1981	아름다운 처녀, 사랑받는 아내, 행복한 엄마 Anne(총12권 전집의 표제) 그린게이블즈 앤(1권)	박순녀	동서문화사
12	1982	빨강머리 앤1(자이언트 문고132), 빨강머리 앤2(자이언트 문고133))	손소희	문공사
13	1984, 1985, 1986, 1987, 1988	앤(총 12권)	박혜정	신일출판사/ 삼오출판사/ 자유시대사
14	1988, 1992, 1993	앤(총 12권)	강영희	한국실록출판사/청화출판사/한국중앙문화공사
15	1988	빨강머리 앤(꾸러기문고10)	글수레 편집부	글수레
16	1985, 1999	빨강머리 앤(그린북스3)	방은희	청목사

『빨강머리 앤』은 1960~2010년까지 50여 년 동안 거의 매 해 출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전시리즈 완역 역시 최소 5차례 이상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이미 번역이 ‘연재, 단행본, 전집 완역’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이후 10여 년 마다 새로운 번역자에 의해 전집이 발간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소년소녀문고전집’을 구성하는 필수적 텍스트로 자리 잡았고 ‘세계아동문고’에서 빠지지 않는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물로의 정착 이후 1980년대에는 성인 여성을 위한 전집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도 했다.

최초의 한글 번역본인 신지식의 번역물은 무라오카 하나코의 일어판 중역임을 밝히며 1980년대에도 재출판되었다. 1981년 서울 사범대 영문과 출신인 박순녀에 의해 최초의 본격 영어 원서 직역임을 강조하는 번역물이 나온 이후에도 일본어 중역본인 신지식 번역본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또한 정식 캐나다 라이선스를 맺은 유일의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재철 번역본도 출간되었지만 역시 1970년대 두 차례 출판되는데 그치는 등 신지식의 번역본의 인기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한글 번역본 중 가장 널리 오래 읽힌 판본은 신지식 번역본으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 역시 신지식 번역본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번역 주체는 신지식, 방은희, 서영은, 손소희, 박순녀, 김유경 등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10권 내외에 달하는 앤 시리즈 전집 번역자는 전부 여성이었다. 신지식은 최초의 여성동화작가이자 번역가, 여고 교사였다. 김동리 부인인 소설가 손소희는 펄 벅의 작품 등도 번역했지만 일본문학 번역 작업도 병행했으며 일본어 번역본을 참조로 『빨강머리 앤』을 번역했다. 박순녀 역시 소설 창작과 『제인에게』, 『폭풍의 언덕』 등의 번역 작업을 병행했으며, 『먼 그대』(1983)와 『사막을 건너는 법』(1975)의

작가 서영은 역시 『빨강머리 앤』을 번역했다. 김유경은 아버지 김천운의 번역본을¹¹⁾ 읽고 성장, 1980년대 박순녀의 『빨강머리 앤』 번역을 돕다가 이후 2002년 자신의 번역본을 출간했다. 이처럼 『빨강머리 앤』은 창작과 번역을 병행했던 여성 번역가들을 통해 한국 여성작가의 세계관과 작품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2-2. 1950~1960년대: 전후 고아, 여고생, 그리고 일본문화

2-2-1. 전후 폐허의 현실과 여고생/고아 독자

『빨강머리 앤』은 1950~1960년대의 몇 가지 현실적 조건 속에서 한국 여성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읽힐 수 있었다. 1950년대에는 전쟁고아가 대거 발생했고 1960년대로 가면서 교육 제도와 출판 매체를 통해 여학생의 교양으로 독서가 정착되었다. ‘고아 모티브’는 일반적으로 소설 서사화의 주요한 동력이지만 『빨강머리 앤』의 수용에서 고아는 서사 속의 모티브에 그치지 않는 현실로 기능했다. 고아 소녀의 성장/성공 서사인 『빨강머리 앤』은 전후 고아가 넘치던 1950년대 후반 당시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6.25 피난길에는 아이가 둘 이상이면 여자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¹²⁾ 여자 고아가 더 많이 생겼다.

번역가 신지식이 헌책방에서 무라오카 하나코의 『빨강머리 앤』을 만난 시기 역시 6.25동란이 끝날 무렵이었다. 그녀는 이 책이 전쟁고아이거나 불우한 처지가 많았던 당시 독자들에게 공감되는 바가 많겠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앤을 보고 희망을 얻고 상상력으로 우울함을 극복하

11) 김유경 아버지 김천운의 『빨강머리 앤』 번역본은 1960~1970년 경 한국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2) 이임하, 『전쟁미망인의 전쟁경험과 생계활동』,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232쪽.

길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학원』 편집주간 출신 최덕교 창조사 대표는 이화여고 교지에 인기리에 번역 연재되던 『빨강머리 앤』을 눈여겨보고 전격 출판할 것을 제안했으며 여고생 독자를 통해 시장성을 가늠했던 그의 예상은 적중하여 『빨강머리 앤』은 창조사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¹³⁾ 당시에 『빨강머리 앤』은 성숙한 중고등학생 정도가 주요 독자 타겟이었다. 여학생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출판물을 양산했던 여학생사(은영사)는 몽고메리 작품의 상품성에 주목하여 1968년에는 몽고메리의 또 다른 작품인 『과수원의 세레나아데』를 신동엽의 번역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빨강머리 앤』은 ‘여성 작가’가 ‘여성 주인공’에 관해 쓴 작품을 ‘여성 번역가’가 ‘여성 독자’에게 소개한 책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여성의 문체와 감성을 통해 전달될 때 여성 독자에게 익숙한 감각으로 다가가 공감을 자아낼 수 있었다. 권위있는 아동문학 평론가이자 연구가였던 이재철의 번역본은 정식 라이선스를 내세워 출판되었고 실제로 그의 번역본은 신지식 번역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번역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철의 평론을 들어야 했던¹⁴⁾ 위치에 있었던 신진 여성 동화작가였던 신지식의 번역이 지속적으로 독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주인공’을 다룬 ‘여성 작가’의 작품을 ‘여성독자’에게 전달할 때 ‘여성 번역가’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1960년대에 이르면 ‘여학생 독자-여대생 신예 작가 등장-여류 문단 조

13) 『전쟁통에 엄마를 잃었다. 그뻐 우리 모두가 ‘앤’이었다』, 『조선일보』, 2014.3.22.

14) ‘소녀소설’은 당대 남성 평론가로부터 “소녀적 동경과 꿈을 유지”하는 “소녀적 감상”의 한계를 보인다는 평을 받았으며(이재철, 『신지식 론』, 『아동문학평론』 11(2), 아동문학평론사, 1986.6, 7쪽.) ‘여성의 낭만적 공상과 발화의 속성’은 ‘유아적,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극복,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대상화되었다.

직화라는 ‘여성 독자, 신예 작가, 기성 문단’의 중층적 구조가 완성된다.¹⁵⁾ 독서계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전면화한 프랑스 작가 사강의 소설이 청춘 여성들에게 이국적 문화 충격과 선망을 낳으며 주목을 받았고, 아프레걸 이야기나 『자유부인』 등을 향유할 기혼·미혼 여성 독자들의 수요가 있었다. 여기에 최희숙, 박계형 등의 한국의 여대생 작가가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이 동시대 여성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분위기 속에서¹⁶⁾ 여고생 독자는 이들과는 또 다른 주체로 존재했다. ‘여고생’ 문화를 탐방하는 1970년대의 한 기사는 여대생도 어린이도 아닌 ‘여고생’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기사는 ‘금지 억압에 저항감을 느끼며 무한한 지적 욕구를 지닌’ 여고생들 사이에서 『빨강머리 앤』이 “앤이 되어봤으면”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리에 독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¹⁷⁾ 이들이 ‘못생긴 고양이’라는 앤의 처지가 되어보고 싶었을 리는 없다. “앤이 되어봤으면”이라는 동경을 추동하는 작품의 매력은 아름다운 서정적 자연과 여성 취향의 이국적 문화, 안온한 마을 공동체라는 배경이다. 그 속에서 앤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사랑스럽게’ 녹이며 승승장구했다. 여고생들은 바다에서 출발하여 차츰 소유와 체험과 축적의 세계로 성장해 나아간 앤, 그리고 비극조차도 웃음과 낭만으로 승화시키는 상상력이라는 재치를 발휘한 앤, 모두에게 사랑받는 소녀로 성장하는 ‘앤’이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앤이 되어봤으면’이라는 독서 반응을 불러 일으킨 『빨강머리 앤』의 붉은 ‘번역-이화교지-여고생-문학소녀’의 연결고리 속에서

15) 1960년대 여성 독서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4.

16)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90쪽.

17) 『동아일보』, 1973.10.11.

탄생했다. 최초의 번역자 신지식은 이화여대 졸업 후 이화여고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며 이 교지의 편집과 문예반의 지도교사를 맡아 오랜 기간 이화여고의 문학 소녀들을 양성했다. 그는 바로 이 학교의 주간지 『거울』에 연재하면서 여고생들의 인기를 얻었고, 이런 반응을 보고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이화여고’와 그곳의 ‘교지’는 일찍부터 여성 번역가와 문학소녀를 양산시킨 곳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여성 번역가들은 이화여전 출신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교지 『이화』나 잡지 등을 통해 남긴 번역은 일개 번역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이나 자기 표현 양식과 결부된 행위였다.¹⁸⁾ 해방 이후 1949년 이화여고 교사 박목월이 창간한 『여학생』 잡지를 통해 문학소녀의 표상과 그 집단적 정체성 또한 형성되었다.¹⁹⁾ “분홍빛 공상을 백퍼센트 향락할 수 있는 곳”²⁰⁾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화학당”의 후신 이화여고의 여교사가 『빨강머리 앤』의 최초 번역가였고 그 제자들이 최초의 독자였다는 사실은 여학생의 교양 형성과 전파에 있어서 선도적 위치에 있던 ‘이화’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게 한다.

2-2-2. 일본 문화의 유입, 그리고 196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지식은 일본어본을 번역 원본으로 삼았다. 1960년대는 일본 문화와 대중문화의 유입이 기성 세대와 신진 세대를 막론하고 입암리에 이루어졌던 시기로²¹⁾ 특히 출판 시장에서는 일본 출판물

18) 박지영, 「위태로운 정체성, 횡단하는 경계인, 『젠더와 번역-여성 지의 형성과 변진』, 소명출판, 2013. 20쪽.

19) 김윤경, 「해방 후 ‘여학생’ 연구-잡지 『여학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47, 한국비평학회, 2013.3.

20) 『여학교 통신』, 『신여성』 7권 6호, 1933. 박숙자, 「분홍빛 공상의 센터멘탈한 ‘소녀’에서 재인용. (『한국문학과 개인성』, 소명출판, 2008, 281쪽)

21) 권보드래, 천정환 공저, 「‘1960’은 왜 일본문화를 좋아했을까?」, 『1960년을 묻다』, 천

의 번역물이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유통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양 문학 역시 여전히 일본어본을 통한 증역으로 유입되는 풍토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지식과 무라오카 하나코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빨강머리 앤』의 최초 번역자이자 가장 오랜 기간 읽혀온 번역본의 역자였다. 이들은 그 밖의 몇 가지 점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무라오카 하나코가 기독교 여학교 출신으로 그의 번역본이 교양있는 상류계급 여성의 문체를 사용한 것처럼 신지식 역시 기독교 여학교 이화 출신이자 교사였다. 무라오카 하나코가 캐나다 선교사가 두고 간 책을 2차 세계대전 기간 읽고 이후 번역한 것처럼 신지식 역시 한국 전쟁 기에 그의 번역본을 헌책방에서 입수하여 읽었다가 전후에 번역한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의 유사한 번역 경로는 미션 스쿨을 통한 문화 전수와 여성 교양인의 교양 형성의 관계, 그리고 전쟁의 직간접 경험이 여성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킨 망탈리테에 주목할 필요를 환기해 준다.

그리고 『빨강머리 앤』은 일본과 한국에 상륙할 때 이전의 다른 소녀 소설들과는 다른 세계관과 정조를 보인 이질적인 존재였다. 당시 문학과 매체를 통해 주목된 10대, 특히 문학 소녀의 표상은 세계와의 부조화와 ‘우울·고뇌’ 등의 정조로 점철되어 ‘병약, 자살’의 결말로 귀결되곤 했다. 과도한 명랑과 긍정의 표상인 ‘앤’의 존재는 전후 실존적 고뇌를 냉소적으로 재현한 ‘아프레겔’이나 방종으로 치달은 ‘자유부인’ 등과²²⁾ 다른 위치에 있었다. 무라오카 하나코 역시 『빨강머리 앤』 번역본을 제출하던 시기, 이전 일본의 소녀 소설들이 현실세계와 단절된 비현실적

년의 상상, 2012.
22) 권보드래, 천정환 공저, 『아프레겔 변신담 혹은 신사임당 탄생설화』,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465-508쪽.

감각과 감상적 눈물을 유도하고 운명론적 비애감에 빠지게 했던 것을 비판하곤 했다. 그는 독자들에게 보다 냉철한 독서 태도, 즉 주인공의 행동과 판단에 이상은 없었는지 읽어내는 거리를 두는 독서를 할 것을 권면했다. 일본어 역자는 감상적인 앤이 현숙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계몽적 서사에 긍정적 시선을 보낸 것이다.

반면 신지식은 무라오카 하나코가 전면적으로 비판했던 전형적인 소녀 소설류를 창작했던 작가였다. 1960년대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그의 번역물 『빨강머리 앤』이 단골손님이었다면 1970년대에는 그의 창작집 『하얀길』이 최인훈의 『광장』과 이청준의 『소문의 벽』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곤 했다.²³⁾ 그는 여대생 작가의 출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1950~1960년대, 여고시절의 당선작품 『하얀길』이 포함된 창작집 『하얀길』(1956)을 출판하며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 1968년 제1회 유네스코 문예상, 4회 소천 문학상, 1979년 1회 대한민국 아동문학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으며 최초의 여성 아동문학가 소녀소설작가로 평가받고 있다.²⁴⁾ 이렇게 한국 소녀 소설 세계에서 존재감 있는 작가였던 신지식은 소녀 독자들에게는 공감을 남성 독자에게는 여성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녀린 소녀의 이미지를 제공했다. 소설가 김훈은 신지식의 창작 소설을 읽었던 남중 시절을 회고하며, 그 작품이 남긴 ‘순정한 눈물 같은 이미지’의 소녀를 마음의 애인으로 삼기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즉 한국어 번역본이 일본어 번역본을 그대로 들여왔지만 두 번역자들

23) 『베스트셀러』, 『동아일보』. 1973.1.17./ 1.31./ 2.27./ 4.25. 등. 1963~1980년까지 신문 검색에서 신지식의 번역과 창작물은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나 신간 소개, 독서감상문 지정도서로 검색되곤 한다.

24)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8, 232쪽.
선안나, 「신지식과 이영희 동화의 대비적 연구」, 『돈암어문학』9, 돈암어문학회, 1997.2.

간의 작품관과 독서관은 달랐다. 한국어 독자들 역시 일본어 역자의 권고처럼 ‘주인공의 감정과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평가하거나 감상성을 극복해야 할 부정적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도리어 앤에게 감정이 입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녀의 낭만성과 상상력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했다.

2-3. 1970~1990년대: 문화컨텐츠, 걸 파워

2-3-1. 교육 문화 컨텐츠로의 확산

1970년대가 되면 아동문학전집 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독서 감상 교육이 장려되는 가운데 『빨강머리 앤』은 아동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빨강머리 앤』은 1970년대부터 전국적 규모의 〈어린이 독서 감상문〉 대회의 지정 도서 목록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으며,²⁵⁾ 1990년대 시행된 초등학생 독서 성향 설문조사에서도 여전히 『어린왕자』, 『이솝우화』와 함께 ‘좋아하는 책’으로 꼽혔다.²⁶⁾ 1990년대에는 한국 창작 동화의 현황을 점검하는 기사에서 한국 작가들이 ‘권선징악적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며 해외 작품 『빨강머리 앤』이나 『알프스 소녀』같은 동화책을 대신할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동화의 탄생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²⁷⁾ 이 텍스트는 아동 문학계에서 이상적 텍스트로 언급되기에 이른다. 즉, 『빨강머리 앤』은 1970년대에 이미 독서·교육계가 권장하고 아동 역시 선호하여 교육과 재미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도서로 안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 창작아동문학계가 모델로 삼고 견제하는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25) 『동아일보』, 1977.4.29.

26) 『한겨레』, 1991.6.6.

27) 『경향일보』, 1991.11.9.

『빨강머리 앤』은 이렇게 아동물로 정착되면서 동시에 성숙한 여성의 책으로도 상품화되었다. 1981년 출판된 박순녀 번역 전집의 광고에는 독자 타겟을 성인층으로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잘 담겨있다. 광고는 이 소설이 “소녀의 책이 아닌 젊은 여성의 영원한 책”이며 “평생 잊지 못할 여자의 책”임을 강조한다.²⁸⁾ 게다가 광고는 이 책이 “소설로 배우는 사랑의 레슨이며 행복에의 실습”이니 “아름다운 처녀, 사랑받는 아내, 행복한 엄마로서 축복받은 여자의 일생을 사는 앤”을 만날 것을 적극 권고한다. “차알즈 황태자비 다이애너 혼수감으로 마련하는 책”이라는 첫 번째 광고 문구를 통해 기혼 여성의 필독서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여자, 자신의 행복보다는 이웃의 불행을 더 아끼고, 사랑할 때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여자”인 ‘앤’은 ‘사랑받는 행복한 여성’의 상징으로, 『빨강머리 앤』은 ‘교양부인이 확보해야 할 지침서’로 제시된 것이다.

이처럼 아동도서와 여성도서로 분화된 『빨강머리 앤』은 1980년대를 거치며 TV 애니메이션, 순회 연극단 등을 통해 전국적 규모로 그 수용자망을 확대하게 되었다. 1979년 일본에서 제작된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은 다카하시 이사오의 감독 하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참여 총 50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1985년 한국에서 방영된다. 이를 통해 『빨강머리 앤』은 기존 출판물의 독자 이외에도 시청자, 관람객으로 그 문화수용자가 확장되었으며 ‘아동’을 타겟으로 한 문화 시장의 주요 콘텐츠로 거듭나게 된다. 1985년 TV 방영 여파로 아동과 부모에게 인지도가 급 향상되자 연극과 뮤지컬의 형태로 서울 및 지방 각지 공연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²⁹⁾ 그리고 아동물,

28) 『광고』, 『동아일보』, 1981.12.14.

29) 1987~1991년 신문에는 『빨강머리 앤』의 연극, 뮤지컬 전국 각지 공연 기사가 빈번히

TV, 연극 등은 전권이 아닌 1권, 즉 앤의 성장과 길버트와의 로맨스 시작 부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사실상 전집을 읽은 소수의 매니아 층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독자, 시청자, 관객들에게는 10대 초중반의 앤의 이야기가 남게 된다. 이는 한국에서 많은 인물 전기가 헬렌 켈러의 사례처럼 주로 10대 초반의 성장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반복 생산 소비되는 경향을 보여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³⁰⁾

2-3-2. '걸 파워': 문화 공유와 전수의 힘

1960년대에 이르면 방대한 여성 독자층이 형성되었다.³¹⁾ '여학생', '직업여성', '주부' 등 여성 주체의 정체성에 따라 독서 양태 역시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강머리 앤』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여성들에게 향유되었다. 즉 『빨강머리 앤』은 소위 '고급문학'과 '대중문학'으로, '아동물'과 '여성물'로 그 독서 취향과 주체가 양분되는 속에서 그 완충지대에 위치했다. 1950년대 후반에 여대생이나 가정주부들은 자신의 독서 취향을 공개할 때, 『테스』, 『주홍글씨』, 『전쟁과 평화』, 『좁은 문』과 같은 외국 문학 작품을 언급하곤 했는데 이는 이들이 당대 사회의 교양의 척도로 기능했기 때문이다.³²⁾ 『빨강머리 앤』은 이들과 같은 반열에 오른 '번역 고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극적인 신문 연재물이나 성과 사랑을 다룬 여대생 수기 소설류와도 거리가 있었다. 쉽고 재밌는 대중독물임

광고된다.

30) 헬렌켈러의 삶에 관한 이야기의 한국 수용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다루었다. 김성연, 『근대의 기적 서사 <헬렌 켈러 자서전>의 식민지 조선 수용 '불구자', '성녀'가 되다』, 『사이』 1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11.

31)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4.

32)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 『조선일보』, 1960.1.29.

『여대생의 교외 생활』, 『동아일보』, 1955.10.20.

은 분명했으나 출판사의 광고 전략을 통해 형성된 그 위상은 ‘교양서’에 가까웠다.

또한 『빨강머리 앤』은 1950~1960년대 “한국의 사강을 발굴”하게 만든 『슬픔이여 안녕』³³⁾류와도 다른 계보에 놓여있다. 사강의 한국판 후예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랑,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전면화하며 사회적 파탄마저 주저하지 않는 도발적 성장서사였다면 『빨강머리 앤』은 그 자리에 여성들 간의 우정과 교육을 통한 자기 발전, 공동체와의 조화를 위치시켰다. 남성 주인공 길버트와도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 지식 자산을 기반으로 사회에 취업한 이후에야 둘 사이의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등 교육적으로 소위 ‘발전적이고 건강한 이성 관계’를 보여준다.

그 ‘건전함’ 덕분에 『빨강머리 앤』은 세대를 거쳐 공유되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빨강머리 앤』은 소녀 독자가 어머니·선생님으로 성장해서 다시 자녀·학생에게 권고하여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남은 독서 물이었다. 한국에서 자녀의 도서 선택과 독서 행위의 책임자는 대체로 여성·어머니이며 독서가 인간의 성장과 교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화 교육과 전수에 있어서 ‘어머니’ 혹은 ‘여선생’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1960년대 여고생 시절 『빨강머리 앤』을 읽고 여교사로 성장한 여성이 1980년대에 이르러 자신의 가출 소녀 제자에게 ‘꼭꼭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빨강머리 앤』을 건네는 장면은³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1977년 한 야간학교 교사는 야학 여학생들을 격려하며 『빨강머리 앤』과 『어린왕자』를 환기시킨다. “아무도

33)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93~95쪽.

34) 『동아일보』, 1980.8.28.

거들떠보지 않는” 고달픈 현실이지만 가슴 속 ‘빨강머리 앤’과 같은 “꿈”을 유지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자”는 교사의 격려는³⁵⁾ 『빨강머리 앤』이 현실 극복의 “꿈”의 서사로 수용되며 후학, 후손들에 권고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서 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역시 전수되었다. 1985년 방영된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1999년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재방송을 요청하고,³⁶⁾ 다시 이를 보고 자란 세대가 자라나 10년 후 이를 추억하며 재방송을 보는 식으로 문화는 되풀이되며 소비되었다. 앤의 소녀시절부터 어머니가 된 이후까지를 그리고 있는 여성 성장 소설 『빨강머리 앤』 전집은 작품의 창작자 번역자, 독자였던 여성들에게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문화의 대물림은 작가, 독자뿐 아니라 번역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한 한국어 여성 번역가는 소녀 시절의 추억의 독서물로 『빨강머리 앤』을 품고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운 후 그 번역 작업에 몰입한다. 한 순간 트렌디하게 소비되고 마는 출판물들이 허다한 오늘날의 독서 시장에서 이와 같은 스테디셀러의 생산·소비 주체에 관한 연구는 시대를 초월한 문학 작품의 현실적 조건을 진단하기 위해 심화될 필요가 있다.

3. 『빨강머리 앤』의 문화정치학

앞선 장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에서 『빨강머리 앤』의 번역출판, 수용사를 정리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향유된 텍스트에 내

35) 『동아일보』, 1977.6.6.

36) 『엄마가 보던 만화, 아이에게도 인기』, 『한겨레』, 1999.1.2.

재된 세계관과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조사와 담론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문화정치학을 입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3-1. 젠더화된 상상력=소녀의 생존 비책

『빨강머리 앤』은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의 고아 소녀 앤이 캐나다 전원 마을의 오누이인 마리라와 매튜에게 ‘입양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앤은 자신의 양육자가 된 마리라와 시종일관 충돌하는 데, 이는 바로 ‘상상력’과 ‘아름다움’에 관한 상반된 견해 때문이다. ‘상상력’과 ‘아름다움’의 가치에 관한 이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은 일상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관통한다. 실용주의자 마리라는 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소녀의 실용적 가치를 진단한다.

“정말이지 그 애는 재미있고 귀여운 애야. 정거장에서부터 쪽 울 때까지 이야기를 너에게도 들려주고 싶구나.”

“그렇게 잘 지껄이는 애는 처음 봤다니까, 그 애는 아무 쪽에도 못 쓴다니까요.”³⁷⁾

농장에서 일할 사내 아이를 부탁했던 마리라는 착오로 여자 아이가 도착하자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사내아이 12명 보다’ 앤이 더 좋았던 매튜는 앤이 ‘재미있고 귀여운 존재’임을 내세워 마리라에게 ‘쓸모 없는 존재’로 낙인찍힌 앤의 가치를 재고시키고자 한다. ‘재미있고 귀여운 것’이 마리라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37) 몽고메리 저, 신지식 역, 『빨강머리 앤, 앤1』, 창조사, 1985. 44쪽. 이하 본문 인용은 신지식 번역본에 따른다.

육체적 생산력보다 ‘쓸모 있는 것’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앤의 ‘재미와 귀여움’의 원천은 상상력과 이를 언어화하는 능력이었다. 역시 앤과 마리라는 ‘상상력’의 가치에 관해서 양극단의 견해를 보인다.

“아주머니는 사실과 다른 일을 상상해본 일이 없어요?”

앤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없어.”

“어머나, 그렇다면 마리라, 참 재미없을 거예요.”

“나는 사실과 다른 상상을 한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게 어떤 일을 시키면 여러 말이 너무 많다니까. 그렇게 우뚝 서 있지만 말고 빨랑 빨랑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³⁸⁾

‘재미’의 쓸모를 부정했던 마리라에게 ‘상상’ 역시 죄였다. 그는 앤에게 자신이 지시한 것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앤의 생각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마리라는 언어를 ‘수행적, 지시적’ 도구로 사용하는 반면, 앤은 ‘언어의 의미, 해석’을 즐기는 언어 유희자이다. 마리라에게 언어가 ‘실용 회화’로 사용된다면 앤에게 언어는 ‘문학’으로 향유된다. 그런데 그런 앤이 초록 지붕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마리라에게 “만일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두어주신다면,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겠어요”(44쪽)라고 약속함으로써 마리라의 언어 규약 속으로 들어가며 갈등은 시작된 것이다. ‘언어의 맛’과 ‘이야기의 힘’을 믿으며 ‘Ann보다 Anne’이 어쩐지 근사하기 때문에 자신을 Anne으로 불러 달라는, 그리고 ‘요리의 레시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어쩐지 상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앤은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수행적 언어의 권위에 균열을 낸다.

38) 몽고메리 저, 신지식 역, 『빨강머리 앤, 앤1』, 창조사, 1985, 70쪽.

마리라가 앤과의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찾게 되고 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마리라에게 앤의 양날검인 '상상력'의 효용은 “앤과 살고 있는 집이라면 절대로 심심하지는 않을 것”(118)이라는 정도였다. 따라서 앤의 상상력이 그 도를 넘어서 현실적 실익을 방해할 때, 마리라는 앤을 징벌한다.

“두 번 다시 그런 말 했다간 그냥 두지 않았을테니까 닥쳐! 너의 그 상상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못마땅했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데까지 간다면 가만 둘 수가 없구나.”

(중략)

앤은 울면서 부탁했다. 생각할수록 무서웠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앞질러가서 어두워진 후의 소나무 숲이 너무 무서워 덜덜 떨었다.

(중략)

“내가 한번 이렇게 말한 이상엔 어디까지나 진심이니까 그리 알아라. 너의 그 허무맹랑한 유령 상상병을 고쳐 주려는 거다. 자, 머뭇거리지 말고 썩썩 걸어가라!”

(중략)

상상의 날개를 끝없이 펼쳐 날았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자기 자신이 그려낸 귀신이 어두운 숲속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가 앙상한 백골의 손을 내밀며 달려들 것처럼 생각되었다.

(중략)

“앞으로는 그냥 평, 평범한 장소에 마, 만족하겠어요. 하, 함부로 상상 같은 건 안하겠어요.”³⁹⁾

이 사건 이후 앤은 그동안 “상상의 날개를 끝없이 펼쳐 날았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평범한 장소에 만족”하고 “함부로 상상같은 건 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성장했다. 초록지붕 집으로 들어온 앤은 몇 년 후 ‘예전의 반도 말을 하지 않고 유난스러운 표현도 쓰지 않게’ 된 것이

39) 몽고메리 저, 신지식 역, 『빨강머리 앤, 앤1』, 창조사, 1985, 174~175쪽.

다(214쪽). 대신 앤은 퀸 학원에 1등으로 입학하는 지적 능력과 노인이 된 마리라와 매튜를 돌보아줄 경제적 능력과 지혜도 생겼다. 그런데 ‘유전적 물질적 자본’이 결핍되어 있던 못생긴 고아 소녀 앤이 이렇게 사회적 ‘쓸모’를 갖추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양육’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때 ‘상상력’은 ‘재미와 사랑스러움’으로 작용하며 교육과 양육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사랑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다.

10대가 노동력으로 동원될 때 남녀의 차이는 부각된다. ‘소녀’는 육체적 기술적으로 생산성있는 ‘사내아이’와 대비되는 존재가 된다. 1950~60년대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후 폐허를 복구하기 위한 건설과 경제 개발 주력 시기로, 남성은 강력한 추진력과 생산성을 여성은 전통적 모성과 사회 역군으로서의 근면성을 권장 받았다. 이는 일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 현장에서 여자 아이는 ‘일하는 사내 아이’와 대비되어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도쿄 타워가 건설되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 영화 『올웨이즈 3번가의 석양(ALWAYS 三丁目の夕日)』에는 일하는 사내 아이를 필요로 하는 동경의 자동차 정비소에 잘못 보내진 시골 소녀가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주인 가족에게 자신의 ‘쓸모 있음’을 증거하며 남아있고자 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그려진다. 앤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번역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1950년대이다. 잘못 배달된 소녀 앤의 이야기는 여성의 효용 가치가 생산성으로 측정될 때 문학적 감성이 생존의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젠더화된 상상력’을 인상적으로 담고 있는 『빨강머리 앤』은 산업사회에서 낭만적 상상력의 사회적 쓸모에 관한, 즉 문학과 문학적 감성의 효용가치에 관한 서사로 독해될 수 있다. 일찍이 레이몬드 윌리엄즈는 ‘낭만적 상상력’이 사회의 단순한 제도·표준·척도를 해체시키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⁴⁰⁾ 『빨강머리 앤』에서 문학적으로 발현된 낭만적 상상력은 사회적 혁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배열하고, 세계 전복이 아닌 세계 적응을 위한 유예의 기간을 웃음과 희화화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앤이 초록 지붕 집과 에번리 마을에 쏘아댄 낭만적 상상력은 ‘세계와 나’의 부조화가 교육과 성장을 통해 완화되는 기간 동안의 완충제로 기능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다한다.⁴¹⁾

3-2. 공상소녀, 공동체로 귀환하다

『빨강머리 앤』은 아동이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성장 서사이며 사랑이 결혼으로 완성되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라는 점에서는 1950~1960년대 여성문학의 한 주류⁴²⁾와 다르지 않다. 앤은 경직된 마을 공동체와 불협화음을 빚으며 성장했지만 갈등은 매번 조화와 화해로 마무리되며 결국 마을 공동체의 교육자로 성장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동떨어져 있던 고아 소녀가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갈등을 거쳐 교육을 통해 세계 속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빨강머리 앤』은 성장/교양소설(Bildungsroman)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여정의 방향이 『인형의 집』의 노라와 반대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록 지붕 집’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앤’은 ‘인형의 집’을 떠난 ‘노라’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고아 앤은 정체된 전원 마을의 보수적인 가정에

40) Raymond Williams,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1973, p.13.

41) 물론 상상력과 수다가 현저히 감소하며 성장한 이후에도 앤은 순수의 상징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정치성에 관해서는 ‘상상력과 생산성의 대치’ 이외의 구도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42)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109쪽.

자발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 ‘규범을 준수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착한 아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성장한 이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여정을 걸었다. 물론 마리라와 매튜라는 싱글 남매에게 입양된 앤의 환경은 엄밀한 의미로는 부부와 출산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 가족은 아니지만 정신적 물질적 유대에 기반한 공동체로서 가족과 다름없는 기능을 행사한다.

『빨강머리 앤』이 유입될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라’로 상징되는 여성상이 여성 본연의 희생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었다.⁴³⁾ 앤은 ‘노라’와 달리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을 지연하는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며 이를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다. 일본어본에서 역시 앤이 부양자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수정하는 부분은 상세히 묘사되면서 길버트가 앤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는 대목과 이를 희생으로 찬미하는 부분은 축소 번역되었다. 로맨스의 대상이자 라이벌이었던 길버트와도 남녀의 현실을 전제로 한 불균형한 권력 관계가 아닌 정정당당한 대등한 경쟁 관계로 그려졌다. 이 대목들을 비롯하여 일본어 번역본은 타협적·보수적 여성관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비판받기도 했다.⁴⁴⁾ 즉 앤의 삶이 서술된 방식은 노라의 경우와 달랐다. 앤은 사회와 충돌하지만 혁명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녀의 상상력을 통해 눈물과 웃음으로 에피소드화함으로써 그 갈등의 무게감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이렇게 『빨강머리 앤』은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 자아도 실현하는 여인의 삶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작은 아씨들』과 같은 미국의 19세기 여성 성장소설(female

43) 곽종원, 『동양적 부부관계의 반성』, 『여원』, 1957.12.

44) Uchiyama, Akiko(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Akage no An in Japanese girl culture: Muraoka Hanako’s translation of Anne of Green Gables”, *Japan Forum*, vol.26, Issue 2, April 2014.

Bildungsroman)의 계보로 간주될 수 있다.

주인공 앤은 공상 소녀이지만 『빨강머리 앤』 서사는 환타지가 아니라 는 점 역시 환기될 필요가 있다.⁴⁵⁾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 소녀의 환타지 세계로의 여행과 귀환인 반면, 『빨강머리 앤』은 규범적 현실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상상력 풍부한 소녀가 현실 세계와 벗어내는 좌충우돌기이다. 앤이 교육을 통해 착한 아이가 되는 과정은 앤의 보호자가 된 마리라가 혀를 차며 들어주는 ‘쓸데없는 공상이나 수다를 늘어놓는’ 횃수가 줄어들면서 진행된다. 앤의 발화와 아이디어가 규범적 마을의 질서와 충돌하는 에피소드들을 지나 앤은 어느덧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 마을 학교의 교사가 된다.

그런데 주인공이 시골을 떠나 도회에서 상급교육을 받고 다시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귀환하여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서사는 한국 문학사 속에서 낯설지 않았다. 1930년대 『상록수』의 채영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민족의 자금으로, 혹은 후원자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게 될 때, 이들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게 되며 ‘민족에의 헌신’이나 ‘후원자에 대한 의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빨강머리 앤』이 번역된 1960년대에도 여자가 공부하러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와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교육을 고아 소녀가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진정 ‘이야기 거리’였다. 1912년 최초 출판되어 20세기 후반의 한국에서 읽힌 『키다리 아저씨』 역시 이러한 소재를 이야기했다.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 역시 앤 못지않은 공상과 문재(文才)를

45) 이 책의 대표적 번역가인 신지식의 창작물 역시 대부분 판타지가 아닌 사실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선안나, 「신지식와 이영희 동화의 대비적 연구」, 『돈암어문학』 9, 돈암어문학회, 1997.2. 139쪽.)

지닌 고아 소녀로서 발랄한 편지로 키다리 아저씨를 즐겁게 해주며 교육 지원금을 꾸준히 받는데 결국 키다리 아저씨와의 결혼을 여운으로 남기며 서사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문학적 계보를 고려하자면 앤이 자신을 양육 교육해준 마리라 매튜를 비롯한 마을 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헌신하게 된다는 결말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3-3. ‘Anne of Green Gables’에서 ‘빨강머리 앤’으로
: ‘배타적 공동체’에서 ‘개인적 수양’으로

보통 앤은 여자 아이라는 이유로 초록마을 집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게 단지 남자아이만은 아니었다. 앤의 등장 이전에 마리라와 이웃 아낙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가 아니라 어느 민족 혹은 지역 출신자여야 하는가를 두고 논박을 펼쳤다. 즉 『빨강머리 앤』에는 젠더의 문제 뿐 아니라 내셔널리즘의 문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은 ‘캐나다’이다. 그리고 서사의 도입부인 1장에서는 외부의 고아를 마을로 불러들인다는 사건을 둘러싸고 ‘캐나다’ 섬마을 사람들의 이민족에 대한 히스테릭한 두려움이 팽팽하게 노출되어 버린다. 20세기에 북미권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및 제 3세계에서 인기리에 번역된 소설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갈등이 바로 캐나다 토박이들이 외부인에게 느끼는 위협과 경계이면서도 그곳 시골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애로 가득한 이상적 공동체로 형상화되는 문제적 지점을 보인다. 앤이 자발적으로 뿌리내린 에번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서정적 배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배타성을 집요하게 드러내는 곳이었다. “제가 여기 있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

든 다하려고 애쓰겠어요”라고 애원하는 앤이 소속되고 싶어했던 ‘여기’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계 중심의 보수적 공동체였다. 앤의 빨강 머리 자체가 스코틀랜드 계의 유산이며, 작품 곳곳에서 언급되는 작품들 역시 스코틀랜드 문화이었다.⁴⁶⁾

‘이민족, 이교도, 고아’에 대한 경계, 즉 ‘혈통, 종교, 태생’이 다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에본리 마을 사람들에게 신문과 소문을 통해 공유·확산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캐나다인에게 해를 끼친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삶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긴장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고아가 정상 부부도 아닌 싱글 남매에게 입양되어 가족의 모습을 꾸려간다는 것은 단지 앤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크나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마리라는 역시 앤을 보자마자 근본 모르는 고아를 들인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강하게 보이며, 앤이 이교도로 보일까봐 염려하여 다음날 바로 주일학교에 보낸다. 앤 역시 빨강머리를 바꾸어준다는 감언이설로 꼬인 엉터리 염색약 장사를 집안에 들인 것을 후회하는 데 이 때 마리라는 ‘이태리 사람’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앤은 엄밀히 말하면 그는 자신의 가없는 처지를 호소한 ‘독일계 유대인’이었다고 정정한다.

이처럼 영어 원본에서는 ‘고아’나 ‘여자’에 대한 우려보다도 사실상 ‘이민족’에 대한 경계심이 우선적으로 강도 높게 드러나 있으며 게다가 ‘이민족’ 역시 출신 지역별로 구분되어 인식된다. 마리라는 마을 주민과 외부로부터 유입할 일꾼을 의논하면서 ‘덜 자란 멍청한 프랑스 소년’이나 ‘런던 거리를 배회하는 아랍인들과 같이 비하하는 표현을 쓴다(“those

46) 강석진, 『캐나다의 국가적 아이콘 『빨강머리 앤』의 미국화』, 『영어영문학』 54권 4호, 2008, 565-566쪽.

stupid half-grown little French boys”, “no London street Arabs for me”). 이들에 대한 거부는 결국 본국 출신자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Give me a native born at least.”) 캐나다 태생을 들여야지만 밤에 안심하며 잘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이다.(“I’ll feel easier in my mind and sleep sounder at nights if we get a born Canadian.”) 마리라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에번리 마을에서 멀지 않은 주에서 데려오는 아이는 자신들과 크게 다를 리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을 사람을 안심시킨다.(“Nova Scotia is right close to the Island. It isn’t as if we were getting him from England or the States. He can’t be much different from ourselves.”)

그런데 원본에서 보이는 세부 민족에 대한 평가나 비판들은 일본어본을 거쳐 한국어본으로 유입되면서 점차 정교하게 번역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무라오카 하나코의 일본어 번역본은 ‘영국의 아랍인’을 ‘흑인’으로 번역했고 일부 1990년대 한국어 번역본들 역시 ‘흑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지식 번역본은 이민족의 이름들이 열거된 부분들을 거의 생략한 채 ‘낮선 이’에 대한 경계 정도로만 서술한다. 이는 단지 번역의 불철저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번역자와 그 수용 문화권이 20세기 초 북미와 유럽인들 간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서술들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한 채 누락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부분의 방점이 약화된 탓에 번역자와 독자들은 『빨강머리 앤』의 주요 갈등을 ‘여자아이’, ‘고야’라는 개인적 신변 문제로 독해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앤 개인의 내면과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물론 최근의 한글 번역본들은 영어 원본을 직역하며 철저한 완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민족의 이름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초 한글 번역이자 대표적 번역본인 신지식본을 비롯한 1990년대

이전의 많은 번역본들이 누락·축약한 지점들은 ‘개인과 민족과 공동체 간의 문제’를 누락한 채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캐나다’라는 배경은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와 달리 하나의 ‘국경’이나 ‘민족’으로 어필하지 않았다. 번역본은 앤이라는 ‘개인’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에번리 마을의 ‘자연’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독자들은 앤과 마을을 떼어놓고 보면 그 배경이 캐나다인지 미국 어디쯤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번역 판본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부분적 차이들은 단지 번역자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징후적 지점이 되기도 한다. 원본 제목인 *Anne of Green Gables*가 『빨강머리 앤』으로 번역된 것 역시 원본에서 강조된 ‘지역·장소 중심성’이 ‘개인 중심’으로 이동된 상징적 제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독자들은 태생적 한계를 상징하는 빨강머리 앤에 감정 이입하고 이를 극복해낸 앤의 정신력과 낙천성을 응원해온 것이다.

4. 결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 작가 몽고메리의 작품 *Anne of Green Gables*의 한국어 번역본 『빨강머리 앤』은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여성 독자에게 향유되어온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다. 이 출판물은 여고생 뿐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 독자까지 포섭하고 영상물로도 제작되어 세대를 거쳐 전수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화사적 존재감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이 텍스트의 출판과 소비의 시대별 특징을 정리하여 수용사를 밝히고, 한 편의 텍스트

가 국경을 건너면서 굴절되는 양상과 수용 문화권에서 향유되고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문화적 동력학을 규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빨강머리 앤』 서사로부터 젠더적, 내셔널리즘적 차원에서 논쟁적 지점들이 있음을 독해했다. 그리고 번역 판본 비교라는 실증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담론 연구를 더욱 정교화할 수 있었다. 최초 번역본이자 가장 널리 읽힌 한국어본인 신지식 번역본은 일본어본의 중역이었으며 따라서 1950년대 소녀소설을 의식하며 작업했던 무라오카 하나코의 세계관과 작품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문에서는 두드러지던 ‘민족 단위의 배타적 공동체들 간의 긴장감’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열악한 현실적 조건을 극복하는 개인의 정신력’의 문제로 초점이 완전히 옮겨가게 되고 ‘보수적 여성관’은 강화되었다. 동양의 독자들에게 이 텍스트의 배경은 캐나다라는 국가적 상징으로 인식되지 않고 서정적 자연을 풍경으로 하는 이상적 마을 공동체로 인식되었다. 또한 1960년대 한국 문학과 출판 시장 속에서 ‘긍정적 낙관적 세계관을 담지하고 보수적 여성관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서사’였던 『빨강머리 앤』은 다소 이질적인 존재였다.

문학 연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빨강머리 앤』의 전체적인 서사를 관통하는 갈등이 ‘문학과 ‘생산성’ 사이의 긴장 관계였다는 점이다. ‘문학적 언어와 수행적·지시적 회화’, ‘공동체의 관습적 규율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노동력으로서 소녀와 사내아이의 쓸모’가 충돌하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문학과 ‘여성’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이 젠더화되며 발현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빨강머리 앤』에서 상상력은 사회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용납되었으며 상상력의 유통기한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순간 시효를 다한다. 그렇게 공상 소녀는 공동체로 귀환했다. 1908년 캐나다 여성의 현실과 소망이 담

긴 『빨강머리 앤』은 20세기 후반 한국 여성의 현실에 공명하고 문학적 상상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21세기 초두에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의 신문.
『여원』 등의 잡지.
몽고메리 저, 이재철 역, 『빨강머리의 앤』, 상서각, 1979.
몽고메리 저, 신지식 역, 『빨강머리 앤 1~10』, 창조사, 1985.
몽고메리 저, 김유경 역, 『그린 게이블스 빨강머리 앤』, 2001.
L.M.Mongomery, *Anne of Green Gables*, Bantam Books, 1987.

2. 논문과 단행본

- 강석진, 『캐나다의 국가적 아이콘 『빨강머리 앤』의 미국화』, 『영어영문학』 54권 4호, 2008.
권보드래, 천정환 공저,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김성연, 『근대의 기적 서사 <헬렌 켈러 자서전>의 식민지 조선 수용 ‘불구자’, ‘성녀’가 되다』, 『사이』 1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11.
김윤경, 『해방 후 ‘여학생’ 연구-잡지 『여학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47, 한국비평문학회, 2013.3.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4.
박숙자, 『한국문학과 개인성』, 소명출판, 2008.
박지영 외, 『젠더와 번역-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 소명출판, 2013.
선안나, 『신지식와 이영희 동화의 대비적 연구』, 『돈암어문학』 9, 돈암어문학회, 1997.2.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이임하, 『‘전쟁미망인’의 전쟁경험과 생계활동』, 『아프레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8.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4.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 Bergstrom, B. (University of Chicago, United States), "Avonlea as 'world': Japanese Anne of Green Gables tourism as embodied fandom", *Japan Forum*, vol.26, Issue 2, April 2014.
- Kristine Moruzi, "'I am content with Canada': Canadian Girl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Jeunesse: Young People, Texts, Cultures* 4.1(2012).
- Mark A. McCutcheon, "German as the Other National Canadian Culture",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Vol 78, No.2, Spring 2009.
- Raymond Williams,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1973
- Uchiyama, Akiko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Akage no An in Japanese girl culture: Muraoka Hanako's translation of Anne of Green Gables", *Japan Forum*, vol.26, Issue 2, April 2014.

Abstract

Dynamics of the translation and acceptance
of *Anne of Green Gables* in modern Korea
: community, individuality, and gendered literary imagination

Kim, Sung-Yeun (Yonsei University)

The Korean translation of *Anne of Green Gables*, written by Canadian author Montgomery, has been a steady bestseller enjoyed by Korean female readers since the 1960s. This publication has won over children and adult readers as well as teenagers and has been turned into visual media, showing a significant presence in the literary history which allows us to understand Korean mass culture through the generations. By organizing th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ation and consumption of this text,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its acceptance and aims to investigate the literary dynamics whereby a single text is deflected as it crosses over national boundaries, is enjoyed in the receptive culture, and reflects a certain outlook on the world.

Furthermore, the paper encompasses the points of contention related to the aspects of gender and nationalism in the narrative of *Anne of Green Gables*. Through an empirical comparative study of the translated versions, the above-mentioned discourse can be further elaborated. Shin Ji-Sik's translation was the first Korean translated version and the most widely read, although it was a retranslation (or secondary translation) of the Japanese version. It was therefore influenced by the translator Muraoka Hanako's worldview and the literary context, as he had worked with an awareness of girls' fiction in the 1950s. The "tension between the exclusive ethnic communities" had been prominent in the original text, but as the text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Japan, the focus was shifted to problems of "individual willpower to overcome a difficult environment", and the "conservative view of women" was strengthened. For readers in Asia, the background of the text was not the nationalistic symbolism of Canada, but an ideal village community with a lyrical natural landscape. In the literary and publishing market of 1960s Korea, *Anne of*

Green Gables took on a somewhat disparate existence as a “narrative of growth into a member of the community based on a positive view of the world and a conservative view of women”.

As a literary study, this paper emphasizes the idea that the conflict driving the overall narrative of *Anne of Green Gables* was the tension between “literature” and “productivity”. The conflicts between the “literary language and performative/deictic conversation”, the “traditional rules of the community and individual freedom”, and the “usefulness of girls and boys in the labor force” are illustrated through series of episodes in order to reproduce three-dimensionally the method by which the social value and usefulness of “literature” and “woman” have been gendered. Imagination in *Anne of Green Gables* is permitted only to the point where rationality and the productivity of society are not threatened, and imagination expires the moment the character grows into a member of the community. In this way, the imaginative girl is returned to the community. *Anne of Green Gables* embodies the reality and hopes of a Canadian woman in 1908, and the book still stands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as a resonance of the reality of late20th-century Korean women, and of the possibility for literary imagination.

(Key Words: Anne of Green Gables, Muraoka Hanako, modern Korea, mass culture, translation, Korean women, nationalism, orphan, gendered imagination.)

■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